

濟州島 巫俗의 比較 研究(Ⅱ)

玄 容 駿

차 례

I 序 論	1. 韓國巫의 成巫
1. 研究의 目的	2. 周邊民族巫의 成巫
2. 研究範圍 및 方法	3. 綜 合
3. 巫俗의 概念과 周邊民族의 巫俗	(以上 國文學報 第5輯 掲載**)
II 巫項의 職能	V 巫 裝·巫 具
1. 韓國巫의 職能	1. 韓國의 巫裝·巫具
2. 周邊民族巫의 職能	2. 周邊民族의 巫裝·巫具
3. 綜 合	3. 綜 合
III 巫儀-忘我의 그 方法	VI 宇 宙 觀
1. 濟州島 및 韓國本土의 巫儀	1. 韓國 巫俗의 宇宙觀
2. 周邊民族의 巫儀	2. 周邊 民族 巫俗의 宇宙觀
3. 綜 合	3. 綜 合
(以上 前號 掲載*)	VII 綜合 및 結論
IV 成 巫 過 程	

V 巫 裝 · 巫 具

1. 韓國의 巫裝 · 巫具

샤만의 特徵的 要素의 하나에 그들의 服飾과 道具가 있다. 이것들은 샤만이즘의 本質的 要素인 神靈과의 直接交通에 깊은 關連을 맺고 役割을 하는 特殊한 意味들이 있다. 그것을 周邊民族間에 比較해 본다는 것은 各其 巫俗의 特質이나 系統등을 究明하는데 重要的 要素가 된다.

그러면 먼저 濟州島의 巫裝, 巫具부터 보기로 하자.

濟州島의 巫裝에는 이미 整理해 놓은 바와 같이¹⁾ ① 관디차림 ② 군복차림 ③ 두루마기차림 ④ 평복차림 ⑤ 道袍차림 ⑥ 特殊服차림이 있고, 巫具에는 巫占具와 巫樂器가 있으니 巫占具에 ① 신칼 ② 산판(천문과 상잔) ③ 바람등이 있고 巫樂器에 ① 징 ② 북 ③ 장귀(杖鼓) ④ 설쇠(쟁가리), 그리고 ⑤ 요령 ⑥ 바람이 있다.²⁾

* 『논문집』 제 5집 pp. 57~98 濟州大學 1973

** 『國文學報』 第5輯 pp. 11~29 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 1973

1) 玄容駿 「濟州島의 巫項」 『濟大學報』 第七號 pp. 177~178 濟州大學 1965

2) 玄容駿 1965 ibid. pp. 172~174

巫裝은 巫儀의 種類와 祭次의 性格에 따라 위의 5種의 服裝차림이 달라지지만, 그것은 두가지 性格의 것으로 나눌 수 있으니, 하나는 司祭者의 身分으로서의 服飾이요, 他는 神의 身分으로의 扮裝服飾이다. 前者에는 관디차림, 두루마기차림, 道袍차림 平服차림이 屬하고 後者에는 군복차림, 特殊服차림이 해당된다. 司祭者 身分의 服飾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관디차림을 除外하면 모두 平服 乃至는 禮服에 不遇하고 特徵的인 것은 관디차림이다. 따라서 細心히 觀察이 必要한 것은 관디차림, 군복차림, 特殊服차림이 된다.

관디차림이란 두루마기 위에 快子를 입고 그 위에 다시 관디를 입고 머리에는 갓을 쓰고 짚신을 신은 복장이다. 이 때 갓에는 孔雀깃을 두 개 꽂는 것이 特徵이며, 女子가 이 복장을 할 때에는 갓을 쓰지 않고 머리에 띠를 두른다. 이 服裝은 심방의 正裝으로서 請神儀禮인 <초감제>와 各種 <맞이>굿 때에 首飾방이 차리는 것이 原則인데, 요새에는 군복차림으로 하고 있다.

군복차림은 두루마기 위에 快子를 입고 띠를 두르고 <목걸이수건>이라는 것을 걸어맨 服裝이다. 이 때에는 갓을 쓰기도하나 송낙(고깔)을 씌어 원칙이며 幟를 매고 짚신을 신는다.

이 服裝은 <석살림> <질치기> <보새감상등> 여러 祭次 때에 차리는데 이 복장도 관디차림과 같이 一般的으로는 司祭者의 身分으로서의 복장이다.

그러나, 가령 질치기 때나 本鄉神을 請해 들일 때 같은 때는 純全한 司祭者로서의 服裝이기 보다 神으로서의 服裝임이 表面에 들어난다. 즉 질치기 때에는 이 服裝에 적배지(赤牌旨)라는 것을 등에 붙이는데, 이것은 저승의 差使가 가지고 다니는 文書이다. 저승의 길을 치워 死靈을 청해 들어 供養을 하고 저승을 極樂으로 다시 보내는데, 이 死靈을 데려오고 데려가는 差使를 象徵하노라고 이 적배지를 붙이는 것이다. 이 적배지를 등에 붙인 군복차림은 바로 差使의 身分으로서의 服裝임에 틀림없다.

本鄉을 請해 들일 때에는 <풀쩍거리>라는 면주천을 가지고 오른 팔뚝을 묶고 신칼과 요령과 감상기를 손에 들고 그 亂暴한 춤과 狂奔한 動作을 하며 神을 맞아 들인다. <풀쩍거리>는 武人이 활을 쏠 때에 소맷자락이 걸리지 않도록 묶어매는 것으로, 司祭者로서의 服裝 裝飾이라 볼 수는 없다. 심방들은 「本鄉이 역세기 때문에 풀쩍거리를 한다」고 說明한다. 이 말은 本鄉神이 武官과 같이 역세다는 말이니 神의 모습을 차리노라고 묶어놓은 것임에 틀림없다.

이 때에 드는 신칼은 守護靈의 靈力이 內在해 있는 呪物로서 惡鬼 驅逐의 呪力과 巫占으로서 神意를 探知할 수 있는 靈力이 깃든 것이며, 요령은 神域의 門을 열어 神을 請해들이는 靈力이 담겨 있는, 守護靈의 象徵物이다.³⁾ 그리고 감상기는 90cm 內外의 푸른 댓가지 上部에 白紙한 장을 묶어 맨 것인데 本鄉神의 象徵物로서 諸神을 請해들이는 機能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堂神木이나 <큰대>가 縮少된 것으로서 神이 내려 깃드는 物体요, 神體의 役割까지 하는 것이

3) 玄容 1965 ibid, pp. 172~175

다.⁴⁾

이로써 보면 심방은 司祭者의 身分으로서의 服裝에 그 身分으로서 必要한 器具를 들고 歌舞를 하여 司祭役을 함과 同時에 神으로서의 裝飾을 붙여 神으로서의 扮裝의 意味를 가지고 神의 身分으로서 必要한 器具를 들고 歌舞를 하면서 神으로서의 行爲를 兼行하고 있는 것이다.

이 관다차림이나 군복차림이나 李朝의 文武官服을 본딴 것이니, 심방의 服裝은 이 官服을 司祭者의 服裝으로 하고, 거기에다 神으로의 扮裝의 裝飾을 若干 加味한 것이라 말할 수도 있다.

特殊服차림이란 演劇的 儀禮에 차리는 服裝이니, 성물놀이 때에 <강태공서목시>役의 심방이나 무꾼의 服裝과 道具를 들고 扮裝하는 것, <삼공맞이> 때에 장남夫婦로 분장하는 것, 세경놀이 때에 農夫로 분장하는 것, 영감놀이 때에 영감神으로 분장하는 것 따위들이다. 이는 神의 行爲를 現實에 再現시키는 聖劇的 儀禮에서 神으로서 분장하는 服裝들이다.

하고 보면 現時 심방의 巫裝은 司祭者의 身分으로서의 服裝이 주이며, 한편 神으로서의 服裝이 거기에 곁들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 巫具의 意味를 概括하여 두기로 한다.

신칼, 산판(천문, 상잔) 그리고 요령은 <맹두>라 하여 守護靈의 靈力이 內在해 있는 象徴物乃至 守護靈 그 自体임은 이미 말했었다. 신칼 산판은 巫占具로 쓰이고 요령은 請神 機能이 있는 樂器로 쓰인다. 이 밖에 바람(바라)이 있는데, 이는 祈願을 할 때에 치기도 하고 뒤로 내던져서 그 顛沛를 보아 吉凶을 占치기도 한다.

다음 基本的인 樂器로서 징, 북, 설쇠(뿡가리)장귀(杖鼓)는 歌舞의 伴奏用으로 쓰이고 있지만, 信仰的으로는 이 樂聲이 神을 感動시켜 所願을 들어주게 하고 惡鬼를 쫓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材料로 보면 북은 牛皮, 장구는 馬皮, 餘他는 竹쇠로 되었고, 形態로는 북이 兩面鼓로 되어 있는 점은 記憶할 만 하고, 用法으로 보면 儀禮를 執行하는 巫는 搖鈴만 들어 소리내고, 나머지 樂器는 樂巫가 各各 分擔하여 옆에서 치고 特히 설쇠(뿡가리)는 손에 들어 치는 게 아니라 체 위에 얹어놓아 두개의 가는 채로 때린다는 점이 特徵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런 樂器에 무슨 裝飾이나 그림이나 彫刻이 없다는 점도 附言해 둔다.

韓國 本土의 巫裝은 南部地方에는 快子, 長衫, 그리고 白紙로 만든 고깔뿌으로 껍 貧弱하지만 北部地方에는 껍 多彩롭다. 그 材料나 무늬가 豪華할 뿐 아니라, 가짓 수가 껍 많고, 黑笠, 紅笠, 鶴毛, 孔雀毛, 虎鬚을 껍은 特別冠, 투구, 戰笠, 고깔등 冠帽類도 많다.⁵⁾

이것들이 李朝의 官服이나 貴夫人服을 본딴 것임은 濟州와 같으나, 각 거리마다 다른 服裝으

4) 玄容駿「濟州島巫儀의 기예考-巫俗의 神體形成의 一面-」『韓國文化人類學』第2號 pp. 87~95 1969 서울

5) 任哲幸「韓國巫俗研究序說」Ⅱ『亞細亞女性研究』10집 p. 205. 淑明女大 1971

로 갈아 입는다는 점은 다르다. 거리가 다르면 神이 다르고 神이 달라지면 거기에 適當한 巫服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은 다만 華麗함을 보이려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本來는 그 神으로 扮裝하고 神化한다는 意味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巫具로는 濟州島보다 多彩로워서, 방울, 줄부채, 三枝槍, 靑龍圖, 五色旗 大小의 手刀, 念珠, 短球, 그리고 明圖등이 있다. 이러한 巫具의 意味가 무엇이나에 대한 研究는 아직 이렇다 할 것이 없어 確實치는 않으나, 司祭者로서의 行爲의 補助器具, 또는 神으로서의 行爲의 補助器具라는 意味가 있는 것이라 해서 無理가 없을 것 같다.

다음 樂器로는 濟州島와 같은 打樂器外에 피리, 大琴 爰琴등 管絃樂器를 걸드리는 地方이 있다. 이는 後代의인 것이고 打樂器가 原來的인 것이라 생각되며 그 材料 形態 用法이 濟州島와 大差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以上 보아온 바와 같이 韓國의 巫裝은 材料로는 絹·綿織物, 形態로는 李朝의 官服, 意味로는 司祭者로서의 服裝이 主이고 神으로서의 분장이 副이며, 巫具는 司祭者로서의 行爲補助呪物, 神으로서의 扮裝, 行爲補助呪物의 意味가 있는 것이며, 樂器는 打樂器가 本來的인 것으로 請神, 祈願, 惡鬼驅逐등 司祭者로서의 行動補助物의 意味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周邊民族의 巫裝·巫具

1) 시베리아 샤만

시베리아 샤만의 巫裝·巫具는 民族에 따라 그 種類나 形態에 差異가 있어 一括적으로 論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共通의이고 特徵的인 것이 있으니, 그것은 上衣, 假面, 冠帽등의 복장과 거울, 방울, 小鍾등의 裝身器, 그리고 북과 그 채등의 樂器에서 볼 수 있다.

上衣는 北部와 南部에 材料의 差異가 있으니, 北部의 야구드, 사모에드, 에니세이, 퉁구스族 등에서는 馴鹿, 羊, 山羊등의 獸皮로 만들고 南部의 부리아드, 소은, 벨칠, 蒙古, 滿洲등에서는 織物로 만들고 있다.

그 形態의 特性은 民族的 差異가 있지만, 一例로 야구드族의 것을 보면 마치 燕尾服식으로 裁斷하여 등쪽의 아랫 部分이 새의 날개 비슷하게 三角形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새를 想起시키는 裁斷法으로서, 그 새를 그 民族에서 巫術法을 처음으로 가르쳤다고 崇拜되는 독수리일 것이라고 한다.⁶⁾

어느 民族이나 普遍的인 것은 이러한 上衣의 前後, 側面 및 소매에 主로 鉄製, 骨製의 여러 가지 裝飾物이 매달려져 있는 점이다. 그 裝飾物은 小鈴, 小鍾, 쇠고리, 銅版, 사람모양의 것, 곰, 말, 白鳥, 독수리, 魚類, 뱀, 해, 달, 世界등을 象徵하는 것, 그 外 女人의 乳房, 사람

6) 國下大慈「シャマンの服裝と持物とその意味」『民族』4卷3號 p. 482 東京

의 肋骨, 六손의 팔, 男女의 性器를 象徵하는 것등 상당히 많다.⁷⁾ 이것들의 意味를 다 알아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가령, 해, 달, 世界등의 象徵物은 그들의 靈界를 表現한 것이라 하고, 動物, 魚類, 鳥類등은 靈界에 있는 많은 奇怪를 表象한 것이라 하며,⁸⁾ 人形의 像은 傳說中의 偉大한 샤만의 形象으로서 巫術을 行할 때 샤만의 體內에 들어가 狂亂의 精神錯亂의 狀態를 나타내게 한다 하고, 小鈴은 有名한 샤만의 靈을 나타낸 것으로서 그 소리에 依해 神의 意志를 傳達한다고 믿고, 白鳥, 독수리, 거위등의 各種 鳥形은 샤만이 病人을 治療할 때 病魔를 쫓아낸다고 믿는다 하며, 개 곰등 動物의 像은 敵을 몰아내는 威力에 의하여 惡靈을 防禦하고, 쇠뚜치들은 달랑달랑 울리는 소리로 惡靈을 驅逐한다고 細分 解釋하기도 한다.⁹⁾ 또 어떤 이는 이들 裝飾物이 샤만의 魂의 靈界에의 旅行을 돕는 羅針과 같은 意味를 지니고 있다고 解釋하기도 한다.¹⁰⁾

이와 같이 갖가지 解釋이 加해지고 있지만, 그것들이 靈界, 偉大했던 샤만, 威力 있는 禽獸등을 象徵하고 巫術을 補助한다고 解釋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샤만이 靈界에 旅行하면서 神靈과 直接 交涉하는 그 秘法的 呪術의 源泉이 되는 超自然的인 힘이 이 上衣에 있다고 믿고 있음엔 틀림없다. 다시 말하면 이 上衣과 그 裝飾物이 샤만의 魂의 旅行을 補助하는 靈力이 內在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守護靈의 靈力이요, 그 守護靈이 샤만을 도와 靈界를 旅行하는 源泉과 그 過程등을 表象해 놓은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샤만은 이 上衣를 입을으로써 守護靈의 靈力이 몸에 密着될 것이요, 그 職能의 遂行이 수월스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샤만의 上衣은 神으로서의 服裝이기 보다 呪術·宗教的 職能者로서의 身分, 職能을 効率化하는 복장이라 생각할만 하다. 이러한 性格은 그들의 冠帽나 巫具에도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샤만이 使用하는 冠帽은 多種多樣하지만 特徵的인 것은 3~4種을 들 수 있다. ① 馴鹿의 가죽으로 만들어 그 外側을 고운 色布 或은 其他 材料로 덮고, 거기에 독수리 또는 부엉이의 깃으로 장식해 놓은 것. ② 全部 부엉이 가죽으로만 만든 것. ③ 곰, 이리, 여우등의 가죽으로 만든 것. ④ 一種의 투구로 되어 있는데 그 上部에 한 쌍의 鹿角을 붙이고 옆에 七首 한 게를 꽂아 놓은 것이 그것이다. 이 冠帽의 裝飾材料인 독수리, 부엉이등은 그들의 守護靈으로 信仰되는 靈鳥이고, 特히 부엉이 가죽의 冠帽을 쓰면 惡靈이 무서워 하여 接近하지 못한다고 그들은 信仰하고 있다. 또 곰, 이리, 여우등도 神話上에 人間의 援助者 또는 保護者로 나타나고 있고, 무

7) W·M·Mikhailowski 著 高橋勝之譯 「シベリヤ・蒙古及び歐羅の異民族間に於けるシャーマン教」 『東亞論叢』 3輯 pp. 328~336 東京 1941

圖下大憲 ibid. pp. 480~484

8) W·M·Mikhailowski ibid. p. 330

9) 圖下大憲 ibid. p. 483

10) W·M·Mikhailowski ibid. p. 330

구에 붙인 鹿角은 施術中 샤만이 神靈과 神靈 사이를 뛰어 다니는데 그 빠름이 사슴과 같음을 象徵한다 하며 七首는 샤만이 施術中에 障害되는 것을 이것으로 除去한다고 믿고 있다.¹¹⁾

이로써 보면 그 冠帽은 그들의 巫術을 補助하는 守護靈의 靈能이 內在해 있는 것으로, 儀禮 執行者의 靈能을 發揮하게 補助하는 服飾이 된다.

샤만은 종종 假面을 쓰는데, 그 意味는 두가지가 있다 한다. 하나는 施術中 外界를 아니 보고 精神統一을 위함이고, 他는 施術을 할 때 惡靈에게 自己의 얼굴을 안 보이고 記憶 못하게 하는 것이라 한다.¹²⁾ 이것도 샤만의 職能을 補助하는 기구인 것이다.

샤만은 거울, 小鍾등을 많이 달아맨 革帶 곧 腰鈴을 허리에 두르고 춤을 출 때 요란한 소리가 나게 하는데, 이 거울은 防禦의 힘이 있다 한다.

샤만의 特徵的인 樂器는 북인데, 그것은 馴鹿皮, 馬皮, 牛皮, 魚類의 가죽등으로 만든 單面鼓다. 이 북은 卵形, 圓形의 두가지가 있는데, 그 表面에는 여러가지 象徵圖가 그려져 있다. 그 그림에는 해, 달, 七大洋등 宇宙를 그린것, 샤만이 神聖島 독수리의 도움으로 飛翔하는 것을 상징한 것과 같은 것이 있다.¹³⁾ 이 북은 샤만이 왼손에 들고 채를 오른 손에 잡아 치면서 춤을 추어 ecstacy에 沒入하는데, 북은 守護靈을 모이는 힘이 있고, 샤만을 靈界에 옮겨가는 靈力도 있다고 한다.¹⁴⁾

샤만의 북채도 特殊하게 만들어져 있어 샤만을 守護하는 善靈의 意味가 있어 북을 치는 用途에뿐 아니라, 豫言時에나 治病時에도 使用한다고 한다.¹⁵⁾

샤만의 지팡이는 또한 特殊한 것이니, 우리나라의 三叉槍 같은 것에 小鈴, 諸雜色の 布片, 其他 여러가지의 小動物의 가죽을 달아매고, 中間部分에 열 가지를 붙여 놓고 있는데, 그 가지에는 샤만에 의해 불러들인 精靈이 一時 거기에 앉는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이 지팡이의 上部에는 馬頭形을, 下部에는 馬蹄形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는 샤만이 施術中 諸世界를 遊行하고 諸精靈과 交通할 때에 이것을 타고 疾走함을 상징한 것이아닌가 解釋하기도 한다.¹⁶⁾

以上 重要な 巫裝 巫具의 意味를 概括해 보았거니와, 이들에게서 共同된 점은 上衣, 裝飾, 冠帽, 腰鈴, 북, 북채, 지팡이등이 모두 샤만이 靈界를 旅行하고 諸神과 直接交涉하는 靈能을 發揮케 補助하는 힘이 內在해 있다는 점이다. 이런 巫裝, 巫具를 몸에 붙임으로써 샤만은 그 靈能을 얻어 職能을 遂行하는 것이니, 이는 바로 守護靈의 靈能인 것이다. 하고 보면 샤만의 巫裝, 巫具는 守護靈의 靈能의 象徵物이 되며 呪術 宗教的 司祭者의 立場에서의 服裝이요, 道具가 되는 것이다.

11) 國下大憲 ibid, pp. 485~489

12) 國下大憲 ibid, p. 490

13) 國下大憲 ibid, p. 504

14) W·M·Mikhailowski ibid, p. 329

15) 國下大憲 ibid, p. 508

16) 國下大憲 ibid, p. 509~510

韓國의 巫裝, 巫具가 司祭者의 立場에서의 것과 神으로서의 분장 또는 그 行爲의 補助物으로서의 兩意가 있는데 比較, 샤만의 것은 司祭者로서의 立場에 重點的 意味가 놓여져 있음이 差異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裝飾物, 巫具등이 守護靈을 상징하는 점, 小鈴이 神意傳達의 機能이 있다고 하는 점, 冠帽에 鳥類의 깃을 꽂는 점, 冠帽 위에 新羅 金冠의 鹿角形 裝飾과 類似하게 鹿角을 붙이는 점, 腰鈴 革帶의 裝飾物이 新羅王의 腰帶의 그것과 類似한 점, 거울, 방울, 搖鈴등이 중요하게 巫具로 쓰이는 점, 樂聲이 病魔를 驅逐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점, 지팡이가 우리의 三叉槍, 濟州島의 <감상기>와 형태가 유사한 점, 特히 거기에 神靈이 내려와 머문다는 점¹⁷⁾ 등 많은 類似點이 發見된다.

한편 韓國의 巫裝 巫具는 시베리아처럼 多樣하지 못하고 簡素化되고 發達해 버린 점, 變化하면서 本來의 意味들이 忘却해 버린 점, 樂器는 多樣해지고 시베리아의 特征인 單面鼓가 없는 점, 방울, 搖鈴, 거울등이 服裝의 裝飾品으로 되지 않고 分離 獨立되어 있는 점등 여러가지 差異도 發見된다. 주려 말하면 샤만의 巫裝·巫具는 가죽을 많이 써서 狩獵文化的이요, 原形的이요, 綜合的이요, 多樣한데 韓國 것은 農耕文化的이요, 變化型이며 分化的이요 簡素化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機能的 意味는 아직도 類似한 점이 많다 하겠다.

2) 滿洲의 巫

滿洲 薩滿의 巫裝·巫具를 一律的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들의 冠帽, 巫衣, 腰鈴, 북등은 共通性이 있다.

神帽 곧 薩滿의 冠帽은 帽上에 金屬製의 새 3마리가 붙었고, 1m 정도의 色布片이 꼬리로 되어 느려뜨려져 있어, 춤을 출 때에는 이것이 머리 위를 빙빙 돌게 되어 있는 점이 特色이다. 巫服은 普通 中國式 옷인데 연분홍이나 붉은 색으로 되어 있고, 허리에는 腰帶를 두른다. 腰帶에는 길이 20cm 정도의 鐵管을 2個 또는 3個씩 一組로 하여 쇠고리로 묶어 매어 있어 춤을 출 때에 소리가 달랑달랑 울리게 되어 있다. 북은 單面鼓로서 金屬 부치가 붙여져 있어 북을 왼손에 들고 치며 춤을 출 때에는 소리가 처렁처렁 울리게 되어 있다.¹⁸⁾

跳大仙이나 跳單鼓도 腰帶, 북등 巫具를 使用함이 같은데, 跳單鼓의 神帽은 모자에 독수리의 깃을 주르런히 꽂고 南京玉의 瓔珞을 前後左右에 장식한 것이며, 巫衣는 허리에 裙子를 두르고 그 위에 腰帶(腰鈴)을 차는데, 그것에는 鐵鈴 10個, 鰐口의 小鈴 若干, 그리고 小鐵鏡 數個가 붙은것 이라 한다.¹⁹⁾

17. 濟州島의 감상기는 이파리가 달린 대가지에 샤만의 지팡이의 열가지 裝飾처럼 白紙를 매어 묶어 놓은 것으로 이것을 들어 춤추면 神靈이 이 旗에 내린다하며, 이 旗을 神이 깃든 神體로 생각하여 祭床에 꽂는다. 玄容駿「濟州島의 巫俗의 기예考-巫俗의 神體形成의 一面-」『文化人類學』2號 1969. 參照

18) 小堀 殿「滿洲族 薩滿의 祭祀를 見て」『民族學研究』14卷 1號 p. 30 東京 1949

19) 赤松智城, 秋葉蓬『滿蒙の民族と宗教』pp. 355~356 大阪屋號書店 1941

清朝의 宮殿의 司祝이 使用하던 것은 그 가짓 수가 많으니, 그 主要한 것을 들면 神鈴, 腰鈴, 手鈴, 鐵神刀, 琵琶, 三弦, 鐵箍鼓, 手鼓, 拍板 등이 있다.

神鈴은 最大直徑 約 7cm의 銅鈴 7個를 가죽의 끈으로 합쳐 묶어서 이를 나무 막대기에 묶어 놓은 것이다.

腰鈴은 口徑 約 3cm 길이 約 15cm의 圓錐形의 鐵鈴 15個乃至 18個를 넓은 革帶에 붙인 것으로 司祝이 이를 허리에 띠어 허리를 흔들며 춤을 추어가면 소리가 나도록 된 것이다.

手鈴은 腰鈴과 同形의 鐵鈴 5乃至 7個를 같이 묶은 것으로 한 손에 들어 흔드는 것이다.

鐵神刀는 우리의 칼춤 출 때의 칼 같이 칼 등에 고리가 여러개 달린 것으로 神歌를 부를 때 흔드는 것이다.

琵琶, 三弦, 鐵箍鼓, 手鼓, 拍板은 다 樂器인데, 鐵箍鼓는 兩面鼓요, 手鼓는 單面鼓이다.

以上에서 보면 시베리아의 것보다 樂器數가 多樣해져 兩面鼓가 나타났고 鐵神刀가 있는 것등 몇 개를 除外하면 그 形態나 用法이 시베리아와 비슷하다.

韓國의 巫具에 가까와진 것은 神刀를 쓴다는 것, 兩面鼓를 쓴다는 것, 樂器가 登場한 것등이며, 其他는 오히려 시베리아의 샤만의 것과 매우 類似하다. 이들 巫具의 意味機能이 어떠했는지는 詳細히 알 수 없으나, 그 形態나 用法이 시베리아의 샤만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意味機能도 大差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滿洲의 巫儀는 시베리아의 것보다 宗教化 되었었으니 그 巫裝·巫具의 意味도 忘却乃至는 變化되어 있으리라는 것은 充分 생각할 수 있다.

3) 日本의 巫

日本의 巫女는 神樂(가구라)나 湯立(유다메)에 관여하는 神社巫와 民間의 巫術을 擔當하는 民間巫가 있어 그 職能이 다르니만치 그 巫裝·巫具도 相當한 差異가 있다.

神社巫가 관여하는 神樂은 그 種類와 流派가 많아서 몇 마디로 要約할 수 없을만치 多種多樣하고, 그에 따라 神樂을 할 때의 巫裝·巫具도 多種多樣하다. 그러나 그 때의 服裝, 假面, 舞踊時의 所持物, 樂器등에 大體的인 共通性은 있으니 그 主要한 것을 보기로 한다.

神樂巫의 服裝으로서 顯著한 것은 ① 白色의 祭服차림으로서, 舞의 種類에 따라 아랫도리에 袴, 裁著(다쓰쓰께—바지 같은 것), 脚絆, 짚신등을 着用하는 것. ② 神의 服裝차림으로서 烏兜나 垂纒의 冠등 特殊한 冠帽를 쓰고 假面을 쓰고 祭服을 입어 若干의 裝飾을 加한 것등이다.

假面도 神樂의 種類에 따라 여러가지 모습엿것이 있다.

춤을 출 때 손에 드는 것으로는 弊(濟州島의 기매처럼 白紙를 여러가지 形態로 잘라 놓은 것), 뗏가지, 방울, 부채, 柳(사까끼—비쭈기나무), 거울, 劍, 鉞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런 것들은 大概 왼 손에 들고 오른 손에 방울을 들어서 소리내며 춤을 춘다. 방울이나 부채는 神을 불러 들어 憑依하는 힘이 있다고 한다.²⁰⁾

20) 本田安次『神樂の研究』pp. 165~167 東京 木耳社 1966

樂器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基本的인 것은 북, 방울, 피리등이다.

近世의 神樂의 上古의 모습을 記錄한 것이라 보이는 것으로 古事記에 記錄되어 있는 天石屋戶의 祭儀가 있다.

日神<아마테라스>가 숨어 버려 天地가 暗黑으로 變하자 日神을 다시 쫓아내기 위해서 버린 祭儀인데 그 모습을 보면 이렇하다. 먼저 長鳴鳥 곧 닭을 울리고, 대장장이를 시켜 거울과 구슬을 만들게 하고, 솟사슴 肩骨을 불에 구워 접을 찼다. 그리고는 사까끼라는 神木을 끊어다윗 가지에 많은 구슬을 걸고 가운데 가지에 큰 거울을 걸고 밑에 가지에 삼(麻)과 닥나무 껍질 말린 것 등 幣를 걸고 祝詞 祈願을 하는 일방, <아메노우스메>가 침낭쿨을 <다스끼>로 몸에 걸어매고, 냉쿨로 머리를 꾸미고 땃뉘를 묶어 손에 들고 憑神하여 몸땀 옷이 벗겨질 때까지 춤을 추었다.

이 祭儀의 憑神 舞踊에 보면 사슴의 肩骨占, 神木의 꾸밈새, 거울, 구슬, 幣, 땃뉘를 든 춤 등 特徵이 보이는데, 鹿肩骨占은 시베리아의 것에 神木의 꾸밈새는 韓國의 堂神木에, 거울, 구슬, 幣 등 巫具는 韓國을 通하여 北方의 것에, 땃뉘를 든 춤은 濟州巫의 감상기를 든 請神舞에 類似함과 同時에 近世의 神樂의 모습에 通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祭儀 모습의 舞는 儀禮執行者로서의 身分으로 裝飾을 하고 巫具를 손에 들고 추는 춤으로 보인다.

그러나 神樂의 많은 舞가 神으로 扮裝을 하여 假面을 쓰고 神의 行爲를 顯現시키는 歌舞임을 생각하면 그 巫裝·巫具는 神으로서의 扮裝의 意味가 더 짙은 것이라 해야 한다. 그 扮裝과 神態舞가 오늘날은 너무 藝能化되고 娛樂化되어 그 本意가 흐려져 버린 것이다.

다음, 民間巫를 보면, 그들의 服裝은 特別한 神衣가 없고 日常服을 입고 儀禮를 하지만 入巫式 때에는 結婚式 때의 服裝으로 꾸민다.

巫具로서 主要한 것은 念珠, 활, 化法箱이라는 상자다. 念珠는 구슬을 꿰어 놓은 것인데 개중에는 구슬 외에 짐승의 이빨, 발톱, 또는 古錢을 부친 것도 있다. 활은 가는 대막대기로 그 弦을 때려서 소리를 내며 呪文을 외게 된 것인데, 대개 化法箱이라는 상자 위에 놓아 소리를 낸다. 化法箱 속에는 小道具가 들어 있다고 한다.

이 외에 북, 방울, 부채등을 쓰는 巫가 가끔 있기는 하되 稀貴하다 한다. 東北地方의 <이다코>는 <이시라사마>라는 人形을 손에 들고 춤을 춘다 하는데 이 人形은 農神, 家神, 先祖의 神등이라 說明되고 本來 巫女の 神은 아니라 한다.²¹⁾

보는 바와 같이 民間巫는 巫服에 特性이 없을 뿐 아니라, 樂器 使用이 없고 단지 念珠와 활을 利用하는 것이 主이다. 같은 日本의 巫이면서 神社巫의 巫裝·巫具는 相當히 多種多樣하고 舞巫로서의 歌舞賽神에 相應한 것으로 되어 있어 神으로서의 扮裝의 意味가 鮮明한데, 民間巫

21) 石津照麗「シャマニズムの特質と範型—東北地方における事例—」『東洋文化』46·47 pp. 26~29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1969

의 것은 그러한 要素가 없이 素朴單純하고 異質의인 것으로 보인다.

4) 冲繩의 巫

冲繩의 巫女의 巫裝·巫具는 特히 노로에 特色이 있다.

노로의 巫裝은 白衣裝束을 하고 머리에는 白色의 머리띠를 두르고 그 위에 <가스라>라는 것을 쓰는 것이 基本이다. <가스라>는 山에 自生하는 넝쿨풀을 해다가 둥근 모양으로 묶어 만들고 머리띠 위에 쓰는 것이다.

이런 服裝으로 儀禮를 할 때에는 큰 부채와 <아다하(薄)>를 든다. 이 <아다하>를 손에 들어 祈願하면 神이 내려 憑依한다고 이야기 되고 있다.²²⁾

이 외에 두드러진 巫具는 없는 듯 하고 樂器는 북이 基本이 되고 있는데 兩面鼓이다.

巫覡의 職能章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노로는 司祭者의 구실을 합과 同時에 神自身の 役割을 祭儀에서 하고 그 이름도 神名으로 불리고 있음을 보면 이 裝束은 神으로서 扮裝하는 衣裝이요 道具임을 알 수 있다.

3. 綜 合

以上 살펴본 바, 諸民族의 巫裝·巫具를 綜合하여 類型的 特色을 比較해 보기로 하자.

우선, 各 民族의 巫裝·巫具의 特徵的인 것을 一覽表化하여 鳥瞰해 봄이 便利할 것이다.

地 域	巫 裝	巫 具	樂 器	類 型
시베리아 中央 亞細亞	巫衣(北部)獸皮製鳥形 (南部)織物製 冠帽... <input type="checkbox"/> 類形 又は 鹿角裝飾 腰帶...鐵製 骨製 各種 裝飾	杖...三叉槍形 各種 裝飾 裝飾物...鈴鐘, 人形, 日, 月, 世界, 動物形, 魚 類形, 鳥類形, 色布 등	單面鼓	<input type="checkbox"/> 巫術者的 立場의 巫裝·巫具 <input type="checkbox"/> 巫具의 未分離 裝飾化
滿 洲	巫衣...織物製 中國式 衣服 裙子 冠帽...鳥類形 鳥羽 裝飾 腰帶...鐵管, 鐵鈴, 鐵鍾 裝飾	神鈴, 手鈴, 鐵神刀	單面鼓 兩面鼓, 三弦 琵琶 拍板	<input type="checkbox"/> 巫術者的 立場의 巫裝·巫具 <input type="checkbox"/> 巫具의 半分離
韓 國	巫衣...有色 官服 冠帽...鳥羽 裝飾 腰帶...(新羅 王朝의 各種 裝 飾의 金帶 있었음 同 金冠도 鹿角形 鳥形 장식임)	搖鈴, 방울, 神刀, 거울(明 圓)三叉槍, 부채 旗類 등	兩面鼓, 杖鼓 징, 팽가리, 피리, 大琴 등	<input type="checkbox"/> 司祭者의 立場의 巫裝巫具와 神으 로서의 扮裝의 兩面 <input type="checkbox"/> 巫具의 分離
日 本	巫衣...白色 祭服 冠帽...鳥兜 冠 } 神社巫 넝쿨 가스라 平服(婚禮服) 民間巫	幣, 竹葉, 부채, 神木枝, 거 울, 劔, 鉞, 鈴 念珠, 弓, 人形 化法箱	兩面鼓 피리 등	<input type="checkbox"/> 神으로서의 扮裝 <input type="checkbox"/> 巫具의 分離 ? <input type="checkbox"/> 巫具의 分離
冲 繩	巫衣...白色 衣裝 冠帽...넝쿨 가스라	아다히(薄) 부채	兩面鼓	<input type="checkbox"/> 神으로서의 扮裝 <input type="checkbox"/> 巫具의 分離

22) 伊藤幹治「奄美の神祭—加計呂麻島ノロ神事調査報告」『國學院大學 日本文化研究所紀要』第3輯, 1958 東京

보는 바와 같이 시베리아에 있어서는 巫衣가 北部에 獸皮製, 南部에 織物製라는 差異가 있으나 獸皮를 材料로 하여 鳥形을 본딴 듯한 裁斷을 하는 점이 特殊하고 冠帽은 여러가지 鳥形이나 鹿角으로 裝飾되고 腰帶도 各種 裝飾이 달려 매어 있다. 이들 巫衣, 冠帽, 腰帶에 裝飾되어 있는 것은 天體를 비롯하여 鈴鍾등과 人形, 動物, 鳥類, 魚類形등으로서 그들이 ecstasy에 들어가 巫術을 遂行하는 能力的 補助物, 다시 말해서 그들의 守護靈의 靈力の 內在物이란 意味가 있다. 樂器는 單面鼓가 特色인데, 이것도 위와 같은 意味가 있어, 그 意味를 象徵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보면 시베리아의 巫裝·巫具는 모두 巫術者的 立場에서의 裝束이요, 道具로서 그들의 巫術을 効能化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한 道具가 韓國처럼 巫衣에서 分離되지 않고 裝飾物로서 附着되어 있는 점이 또한 두드러진 特徵이다.

滿洲로 내려오면 巫衣는 織物로 中國服飾化 했지만, 冠帽은 시베리아와 같이 鳥類形이나 鳥羽의 裝飾이 붙고 腰帶는 鐵製의 管子나 鈴, 鍾등을 매달아 춤추면 소리나게 되어 있고 鈴類가 巫裝에서 一部分離되어 손에 들어 소리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樂器가 單面鼓 外에 兩面鼓가 보이기 시작하고 管絃樂器까지 나타나 多樣化되어 있다. 結局 巫具가 巫裝에서 一部分離되면서 樂器가 多樣化했을 뿐 巫裝에 있어서는 시베리아의 샤만과 大差없이 同似性을 보이고 있다. 滿洲의 薩滿은 시베리아의 샤만에 比하면 훨씬 司祭者化한 面이 있지만 巫裝·巫具는 시베리아와 같이 巫術者的 立場에서의 것이라는 性格을 維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韓國의 巫覡은 巫服이 李朝의 官服으로 되고 冠帽은 갖에 鳥羽를 몇개 裝飾하는 程度로 變하였으며 腰帶는 古時의 王의 腰帶에 그 性格을 남기고 있을 뿐이다. 新羅의 王이 쓰던 金帶나 金冠을 보면 金帶에는 시베리아 샤만의 腰帶처럼 魚類形 其他의 裝飾物이 달려져 있고, 金冠에는 鹿角形의 裝飾 위에 자그마한 鳥形의 裝飾을 붙이고 있다.

韓國의 巫具는 搖鈴, 방울, 明圖, 神刀, 부채등이 完全히 巫服의 裝飾에서 分離되어 손에 드는 것으로 되었고 樂器도 單面鼓가 사라지고 兩面鼓로 바꾸었으며 그 가짓 수가 많아졌다. 이러한 巫裝·巫具는 두가지 性格을 띠고 있으니, 하나는 司祭者로서의 裝束이며, 道具요, 他는 神으로의 扮裝의 意味를 지니고 있다. 卽 시베리아나 滿洲는 巫術者로서의 裝束이라는 데에 重點이 있는데, 韓國에 오면 이 意味에다 神으로의 扮裝이라 意味가 있어 兩面性을 지니게 된 것이다.

日本으로 넘어가면 神社巫와 民間巫의 差異가 있어 神社巫의 것은 韓國의 것과 相通하는 점이 있으나 民間巫의 것은 淸 異質의 인 感を 준다.

神社巫의 巫衣는 白色 祭服, 冠帽은 鳥兜등이 있어 새를 重視하는 시베리아, 滿洲등의 殘影이 보이고, 巫具는 우리의 <기매>와 같은 弊, <감상기> <큰대>같은 竹葉, 부채, 거울, 劍, 鈴類등 우리와 비슷하고 이것들이 巫裝에서 完全 分離되어 韓國巫와 같이 손에 들어 춤추고 있다. 樂器도 韓國과 같이 兩面鼓가 쓰이고 多樣化했다. 그런데 이 神社巫의 巫裝은 神으로의 扮

裝의 意味가 強하며 司祭者로서의 立場과 神으로의 扮裝이라는 兩面性을 지닌 韓國 巫裝 中 後者에게 重點의 意味가 놓여진 形態가 되었다.

그러나, 머리에 넝쿨의 <가쓰라>를 썼다는 점, 衣裝의 白色이라는 점 등 沖繩에 것과 相通하는 要素도 있다.

沖繩의 巫(특히 노로)는 白色裝束에 넝쿨의 <가쓰라>를 쓰고 부채나 <아다히(薄)>를 들어 神으로서의 扮裝이라는 意味가 日本의 神社巫보다도 強하다. 巫具가 巫裝에서 分離되어 있는 점은 日本이나 韓國과 같되 그 巫具가 매우 素朴, 單調하고 鐵製物이 없다는 것은 日本의 民間巫와 通한다. 沖繩의 巫樂器는 兩面鼓이다.

이런데 比해 日本의 民間巫는 平常服(또는 婚禮服을 입을 때도 있음)에 念珠, 활이 重要한 巫具로 되어 있고 북의 使用도 없어 相當히 異質的으로 보이나 佛敎의 後代影響이 아님가도 생각된다.

어떻든 巫裝·巫具에 있어서 두드러진 것은 巫裝에 있어서 새(鳥)의 關聯, 巫具에 있어서 鈴, 鍾, 樂器에 單面鼓등을 들 수 있는데, 巫裝에 있어서의 새는 시베리아→滿洲→韓國→日本의 神社巫에 이룰수록 점점 弱화되어 사라지고, 鈴, 鍾은 시베리아에서 日本의 神社巫까지 펼쳐 있으나, 單面鼓는 시베리아→滿洲에서 끊어져 韓國, 日本, 沖繩은 兩面鼓가 分布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시베리아, 滿洲, 韓國, 日本의 神社巫는 同一類型으로 위의 順位에 따라 점점 變化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日本의 民間巫나 沖繩의 巫는 다른 類型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巫裝·巫具의 意味·機能으로 보면 시베리아는 巫術者의 立場의 것이라는 의미에 重點이 있고 滿洲도 同一한데, 韓國에 오면 神의 扮裝이라는 면이 附加되어 兩面 機能을 하고, 日本과 沖繩은 神으로의 扮裝에 重點이 있어 韓國이 分界點이 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巫裝과 巫具의 分離關係는 滿洲에서 一部分離現象이 일어나고 韓國에 와서 完全 分離되었다.

그리고 보면 綜合的인 면에서 類型을 가른다면 韓國이 시베리아·滿洲와 日本·沖繩의 中間 分界點이 되고 있다 하겠다.

Ⅶ 宇 宙 觀

1. 韓國巫의 宇宙觀

샤머니즘의 特性의 하나에 그 宇宙觀이 있다. 이 宇宙가 어떻게 構造되어 있다고 信仰하느냐 하는 것이다.

宇宙構造에 대한 基本的인 理念을 分析하는 길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다. 儀禮時의 巫歌 辭說, 儀禮의 設備와 形式, 神話의 表現등을 分析하여 그 觀念을 抽出해 내는 것도 좋은 方法의 하나다.

이런 方法으로 우선 濟州島 巫俗의 宇宙構造觀부터 分析해 보기로 하자.

먼저 濟州島 巫儀의 唱辭에서 請神의 辭說을 보면 神을 두가지 다른 語辭로 請해 들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나는 神名을 呼名해 가며 <신느립서>하여 請하는 것이요, 他는 神名을 呼名해 가며 <신수품서>하는 辭說로 請하는 것이다. 神에 따라 <신느립서>하여 부르는 神과 <신수품서>하여 부르는 神이 다르다.

<신느립서>라는 말은 「神내리십시오」 곧 「下降하십시오」 하는 뜻이요, <신수품서>라는 말은 平面的인 移動으로 모여 오시라는 뜻이라 한다.

「내리다」 「下降하다」 하는 말은 위에서 밑으로 移動하는 垂直的 概念으로서, <신수품다> 即 平面的 移動으로 모여 온다는 것과는 根本的으로 다른 것이다. 神에게 垂直的 移動으로 下降하라고 請하는 것은 神이 人間世界의 위, 곧 하늘에 있다는 觀念에 基因한 表現이고, 平面的 移動으로 오라고 請하는 것은 神이 水平的인 地上世界에 있다는 觀念에서 나온 表現이다. 結局 濟州島의 巫神은 垂直的인 天上界와 水平的인 地上界에 存在하고 있는 것이 되며, 심방은 이 神들을 區別하여 或은 垂直的으로 或은 水平的으로 移動시켜 모셔 들이고 있는 것이다.¹⁾ 여기에서 天上界와 地上界, 두 가지의 世界의 認定을 알게 된다. 請神의 辭說이나 送神의 辭說에 地下界로 내려가도록 하는 表現은 發見하지 못한다.

다음 儀禮의 設備나 그 形式을 細心하게 觀察하고 分析하여 보면 두 가지의 特徵的인 請神方法을 發見하게 된다. 濟州島 큰굿은 3~4日씩이나 걸리는 複雜한 儀禮이지만, 그것은 크게 나누어 ① 基本形式儀禮인 <초감제> ② 迎神儀禮인 <맞이> ③ 神話儀禮인 <본풀이> ④ 聖劇儀禮인 <놀이>로 나누어진다.²⁾ 두 가지의 特徵的인 請神方法이란 ① 基本形式儀禮인 <초감제> 와 迎神儀禮인 <맞이>에서 發見되는 것이다.

1) 玄容駿 「濟州島 巫神의 住處」 『濟州島民俗』 第3號 p. 1~4, 1965 濟州

2) 玄容駿 「濟州島의 巫俗儀禮」 『韓國言語文學』 3輯 pp. 47~53 韓國言語文學會 1965

큰 곳을 할 때에는 4~5m의 큰대(長竿)를 마당에 세우는데, 그것에는 頂上에 솔잎 또는 동백가지를 묶어 매고 神靈의 糧食이라 해서 쌀 자루와 搖鈴을 달아매어져 있다. 그리고 긴 무명을 가지고 큰대와 집안의 祭床에 連結시켜 매어 놓는다. 神靈은 이 큰대를 通하여 下降하고 그 무명을 通路로 하여 祭床에 넘어 온다고 한다. 이 무명을 <다리>라고 한다. 초감계는 이 큰대 앞에서 歌舞로써 神을 下降시켜 供宴하고 祈願하고 하는 것이다. 이 儀禮의 形式은 이 큰대를 通하여 垂直的으로 下降시키는데 主旨가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³⁾

이에 대해 <맞이>는 神의 來臨路를 치워 닦아 神을 맞이하여 供宴하고 祈願하는 儀禮다. 그 모습은 巫覡의 職能章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댓가지를 가지고 神의 來臨路를 象徵하는 길을 만들고 歌舞로써 길을 치워 닦아서 그 길로 來往하는 神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 掃路過程이 茂盛한 雜草을 베어내고 평탄한 道路로 닦아내는 것을 보면 험한 山길이나 들길의 이미지를 느끼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掃路作業을 거치고 神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 이는 水平的으로 來臨하는 神을 맞이하는 方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迎神儀禮의 主旨와 초감계등의 基本形式儀禮의 그것과는 다른 두 가지의 觀念에서 이루어지는 儀禮方式이어서, 前者를 水平的 來臨型의 儀禮方式이라고 한다면 後者は 垂直的 降臨型의 儀禮方式이라고 할만한 것이다.⁴⁾ 이 두가지의 儀禮方式은 바로 宇宙를 垂直的으로 보는 觀念과 水平的으로 보는 觀念의 두 가지의 宇宙構造觀을 基盤으로 하여 各各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垂直的 降臨型의 儀禮形式으로 보이는 것은 濟州島 뿐 아니라, 韓國 普遍的인 것이니, 本土의 서낭대, 내림대, 時代를 거슬러 오르면 馬韓의 蘇塗등이 다 濟州島의 큰대와 같은 것이며, 또 韓國의 堂神木이 같은 性格의 것이어서 이를 通하여 神이 下降한다고 믿었던 것이다.⁵⁾

한편 水平的 來臨型의 儀禮形式도 濟州島의 영등굿을 보면 바다의 길을 치워 닦아 영등神을 맞이하고, 보낼 때에는 짚으로 만든 작은 배에 神과 供物을 실어 바다 저쪽 나라로 보내는 儀禮를 하여⁶⁾ 그 觀念이 뚜렷이 보이며, 本土의 지노기굿등에도 그 觀念은 나타나 있다.

이러한 두 개의 觀念은 神話에도 들어난다. 檀君神話에는 桓雄이 太伯山頂의 神檀樹下에, 首露王은 龜旨峰上에, 朴赫居世는 楊山에, 金閔智는 月城 西里의 始林에, 北夫余의 解慕漱는 五龍車를 타고 各各 下降하고 있다. 그리고 濟州島의 三姓神話에는 碧浪國의 三神女가 來訪해왔고, 濟州島의 많은 堂神話는 東海龍王國등 바다 저 너머의 나라에서 女神이 來訪해 오는 등, 바

3) 玄容駿 「濟州島의 巫俗—その儀禮形式に見える信仰複合—」 『民族學研究』 36卷 4號 pp. 269~276
日本民族學會 1971

4) 玄容駿 1971 ibid. p. 277

5) 玄容駿 「濟州島巫覡의 기예考—巫俗의 神體形式의 一面—」 『韓國文化人類學』 2號 pp. 87~98 서울 1969

6) 玄容駿 「濟州島의 영등굿」 『韓國民俗學研究』 1號 pp. 133~134 서울 1970

다 건너 나라에서 水平的인 移動으로 來訪하는 神話가 많다.⁷⁾ 이 영등神, 東海龍王國 등은 海洋界의 한 世界를 認定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로써 보면 韓國 巫俗의 宇宙觀은 天上界—地上界를 認定하는 垂直的 宇宙構造觀과 地上界—海洋界를 認定하는 水平的 宇宙構造觀이 서로 複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周邊民族 巫俗의 宇宙觀

北方 샤마니즘의 宇宙觀은 天上界, 地上界, 地下界의 垂直的 三段階의 宇宙構造임은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

그러나, 샤마니즘의 宇宙觀이라 해도 一律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니, 가령 北시베리아에 散在해 있는 <에벡키>族 (통구스族)에 있어서는 河川의 흐름을 基軸으로 하여 <川上> <川下>로 二分하여 世界를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森林 狩獵民들의 素朴하고 古層的인 觀念으로서 方位觀에 基礎를 두고 있는 것이다.⁸⁾ 그렇지만 北亞細亞 및 中央亞細亞의 많은 民族은 天上界에는 善神이, 地上界에는 人間이, 地下界에는 惡靈이 살고 있는 것으로 믿고, 天上界는 매우 아름다운 天國으로 생각하고 地下界는 暗黑의 저승으로 생각하고 있다. 天上界나 地下界는 여러 층으로 생각하기도 하니, 혹은 3層 혹은 18層까지 多層으로 構造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⁹⁾ 이러한 垂直的 多層構造의 宇宙를 샤만은 ecstasy에 들어가 旅行하고 神과 直接交涉하는 것이다.

이러한 旅行은 歌舞 또는 演劇的 方法으로 實演되니, 儀禮章에서 例示한 바와 같이 여러 층계로 줄기를 깎아 만든 白樺木을 세우고, 샤만이 그 층계를 하나 하나 올라가며 各層 하늘을 順序로 올라가고 있다고 象徵하는 것은 宇宙의 垂直的 多層 構造를 儀禮行爲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白樺木은 天上界와 地上界를 잇는 通路요, 宇宙의 支柱다. 이러한 通路, 支柱의 象徵物은 滿蒙一帶에도 있으니, 神杆 오보등이 그것이다. 卽 滿洲旗인들이 祭祀를 지내는 神杆,¹⁰⁾ 蒙古人들의 祭祀에 山上등 높은 곳에 柳枝등을 꽃아 만든 오보,¹¹⁾ 淸의 宮殿의 祭神 祭天 때에 세우는 楠木神杆, 松樹神杆, 柳樹神杆¹²⁾ 등은 神靈의 降臨通路라는 의미가 있다. 이런 神杆은 滿

7) 玄容駿 「堂神話의 motif와 基本形式—濟州島 堂神話考 I」 『國文學報』 2輯 pp. 66~101 濟州大學 1964

8) Adolf Friedrich 田中克彥譯 「ツングース族의 世界像—生活と生命に關する—自然民族의 意識—」 『神話·社會·世界觀』 (大林太良編) pp. 113~127 角川書店 1972

9) G. Nioradze 著 李弘植 譯 『西伯利亞諸民族의 原始宗教』 pp. 39~49 서울新聞社 1949

10) 赤松智城 秋葉隆 『滿蒙의 民族と宗教』 pp. 193~205 大阪屋號書店 1940

11) 赤松, 秋葉 1940, ibid. pp. 252~264

12) 石橋丑雄 『北平의 薩滿教に就いて』 pp. 187~194 外務省文化部 1934

蒙系民族의 祭祀方式의 特徵임과 同時에 韓國 堂神木, 큰대, 서낭대, 내림대, 감상기등과 同系의 것이다. 이는 神이 垂直的으로 下降한다는 觀念에 基礎를 둔 垂直的 降臨型의 儀禮形式이며, 同時에 宇宙의 垂直的 構造觀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우주의 構造는 神話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으니, 蒙古의 天上, 地上, 地下界의 神話, 그 始祖의 天降, 突厥의 天降始祖등 北方民族의 降臨型 神話는 널리 알려진 것이다.

北方 隣國民族의 儀禮形式이나 神話가 垂直的 降臨型으로 되어 있어 垂直的 宇宙構造觀을 表象해 주는가 하면 南方의 沖繩에는 天上界의 神觀이 있음은 물론이지만, 所謂<나라이가나이><니루아가나이>등이라 불리우는 먼 海洋의 理想國에서 神이 來訪한다는 觀念이 鮮明하여 注目을 끈다. 이 <나라이가나이>는 大概 東海의 아득한 먼 곳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海底의 나라, 龍宮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 나라에서 人間文化에 가장 所重한 불(火)이나 벼(稻)의 씨를 처음 가져왔다고 神話되고, 火神도 이 나라에서 出生했다 하여 生命이나 풍요의 源泉地라 믿고 있다. 또 死靈도 이 聖域에 가 往生한다 하여 하나의 他界로 생각하기도 한다.¹³⁾ 그리고 이 <나라이카나이>에서 一年一度 人間界를 來訪하여 人間에게 福利와 풍요를 주고 가는 神이 있다고 믿어, 二月에 이 神을 맞이하는 迎神祭와 四月에 送神祭를 노로가 지내고 있다.¹⁴⁾ 그 祭儀는 노로神役 一行이 바닷가에 가서 神을 불러 맞이하여 祭場까지 案内해 가서 儀禮하고, 送神 때에는 다시 바닷가로 가 보내는 形式이다.

이 來訪神의 信仰과 그 儀禮는 海洋에 樂土요, 他界인 聖域이 있다는 觀念으로서 韓國에도 그 觀念이 보인다.¹⁵⁾

이 信仰은 人間界인 地上界에 對等한 또 하나의 世界가 海洋에 있다는 觀念에 基礎를 둔 것으로서 地上界—海洋界라는 水平的 宇宙構造觀의 所産이 것이다. 그리고 보면 沖繩에는 天上界—地上界라는 垂直的 宇宙構造가 있는 同時에, 地上界—海洋界라는 水平的 構造觀이 있는 셈이다. 이 後者が 特히 發達되어 있는 點에 沖繩의 宇宙觀의 特徵이 있다.

日本에도 이 두 개의 觀念은 散在해 있다. 우선, 全國에 散在하여 있는 神木, 神社 祭儀 때에 세우는 기둥(特히 諏訪大社의 御柱)등은 韓國의 神木, 서낭대등이나 滿洲의 神話등과 同系인 것이겠고, 神話에서 顯著한 天孫降臨은 韓國이나 北方의 降臨型 神話와 直結되는 것이다.

이렇게 垂直的 降臨型이 있는가 하면 바다의 聖域으로부터 現世를 訪問해 오는 神靈을 모시는 神社祭가 많고 濟州島의 영등神 보내듯 짚으로 만든 배를 바다에 띄어 보내는 行事(船供え, 船流し)가 있다.¹⁶⁾ 그리고 <盆> 때에 <길베기(道刈り)> <盆道 만들기(盆道作り)> <精靈의 길트기(精靈様の道あけ)>라 해서 山으로부터 마을까지 或은 墓地에서 집에까지 精靈이 찾아오

13) 折口信夫『琉球の宗教』『折口信夫全集』第2卷 pp. 42~78 中央公論社 1695

14) 伊藤幹治『奄美の神祭』『國學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紀要』第3輯 pp. 78~98 1958

15) 玄容駿『古代韓民族의 海洋他界』『文化人類學』第5輯 pp. 49~67 서울 1972

16) 松木信広『日本の神話』pp. 5~23 至文堂 1956

는 길의 풀을 베고 맞이하는 行事도 있다.¹⁷⁾ 마치 濟州島의 〈질척기〉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行事, 神話 등은 바로 神靈이 水平的으로 來訪한다는 信仰에 基礎를 둔 것으로서 世界의 水平的 構造를 생각한 것이다. 結局 日本에도 우주의 垂直的 構造와 水平的 構造의 兩 觀念이 併存함을 알게 한다.

3. 綜 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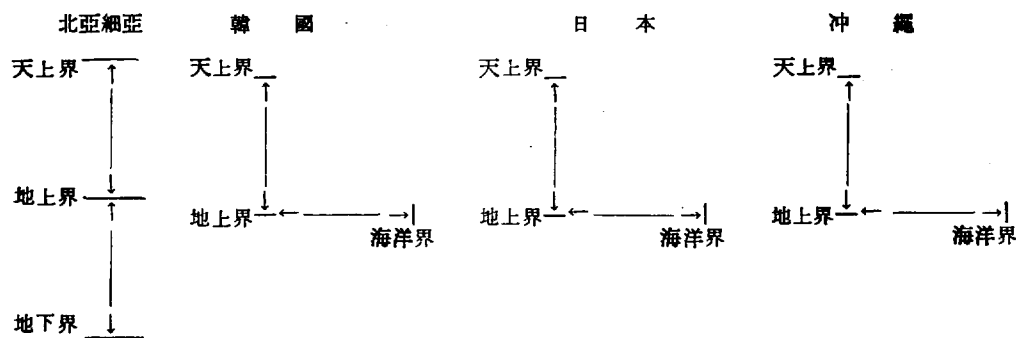
以上 諸民族의 宇宙構造觀을 보았거니와 綜合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整理될 수 있다.

北方의 샤머니즘에서는 天上界, 地上界, 地下界의 垂直的 多層 構造觀이 支配的이고, 滿洲도 이에 準한다.

韓國은 天上界, 地上界의 垂直的 二元構造가 顯著하고, 또한 地上界, 海洋界의 水平的 二元構造觀이 있어, 이 兩者가 複合되어 있다. 地域적으로 보면 前者는 주로 北部에, 後者는 주로 南部에 顯著하다.

日本은 韓國과 같이 垂直的 構造와 水平的 構造觀이 複合되어 있고, 冲繩은 兩 構造觀이 있되 水平的 二元 構造가 顯著함이 特色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北方亞細亞의 垂直的 우주관과 이에 對峙되는 南方 冲繩의 水平的 우주관의 顯著한 差를 發見하게 되고 韓國이나 日本에는 이 兩 우주관이 서로 複合되어 있다는 點을 깨닫게 된다. 特히 韓國의 南部 濟州島에는 이 複合이 顯著히 들어나는 것이다.



岡正雄氏는 垂直的 降臨神信仰과 水平的 來訪神信仰의 文化的 背景을 規定하려고 試圖하였는데, 그는, 前者를 父系的 英雄神崇拜의 傾向이 强하다 하고 北方으로부터 韓半島를 거쳐 들어간 父權的 支配者 文化에 歸屬시키고, 後者는 母權的, 農耕의 文化圈의 色彩가 强하다하여 前者보다도 먼저 日本에 流入한 것이라 하였다.¹⁸⁾

17) 堀一郎『民間信仰』p. 209 岩波書店 1951

18) 石田英一郎他『日本民族の起源』pp. 59~84 平凡社 1958

萬一 이 說이 옳은 것이라면 神繩의 水平的 우주관은 南方의 母系 母權의 農耕文化를 背景으로 한 것이 되며, 垂直, 水平 兩型的 複合된 韓國의 우주관은 南方의 文化的 우주관과 北方의 父系·父權의 牧畜文化를 背景으로 한 우주관이 複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VII 綜合 및 結論

이제까지 샤머니즘의 特徵的 要素로 보이는 職能, 巫儀, 成巫過程, 巫裝·巫具, 宇宙觀등을 個別的으로 周邊民族間에 比較하여 왔다, 이제 이 要素別의 比較를 綜合하여 全體的 複合體로서의 各民族의 巫俗을 類型的으로 把握하고 우리가 바라던 結論으로 集約시켜 보기로 한다.

샤머니즘이란 말할 것도 없이 自己의 뜻대로 忘我(trance) 狀態에 沒入할 수 있는 特定의 人間, 곧 샤만을 둘러싼 呪術·宗教요, 샤만이란 守護靈의 도움을 받아 忘我(trance) 狀態에 들어가 神靈과 直接 交涉하여 司祭, 呪醫, 占師, 託宣, 靈媒등 職能을 遂行하는 專門家라 한다면 그중 어느 職能만이 特히 샤만의 本質的인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샤만은 이들 職能의 全部에 골고루 힘을 나눌 수도 있고, 어느 一部 職能을 特히 強調할 수도 있다. 거기에 職能者의 性格은 多少씩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諸般 特徵 要素도 強弱 加減의 差異를 낳게 마련이다.

샤머니즘의 古典의 地域이라는 시베리아 및 中央亞細亞의 샤만은 地域의 差異가 있지만 위의 諸職能을 고루 遂行하는 者라 할 수 있고 그 중에도 特히 置重하는 點을 들면 治病, 占術이라 할 수 있다. 治病, 占術은 巫術의 본바탕인 것임과 同時에 보다 個人的 儀禮行事에 屬하는 것이고, 司祭는 보다 公共의 行事에 屬하는 것이다. 샤만은 公·私의 모든 呪術·宗教의 慾求에 應하는 者이어서 結局엔 샤만의 모든 職能을 未分化인 채로 遂行하고 있는 셈이 된다.

샤만은 이러한 職能을 守護靈의 補助를 빌어 脫魂, 旅行하여 直接 靈界에 移動해 감으로써 遂行하는데, 그 守護靈은 많이 鳥類로 觀念되고, 脫魂(ecstasy)의 技術은 歌·舞의 方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守護靈의 補助에 依한 ecstasy」라는 要素는 샤만의 成巫過程에 內的 連關이 되어 守護靈의 召命에 依한 入巫라는 觀念이 強調되어 神經性 病弱者가 被召命者라고 社會的 認定을 받게 되고, 만일 이런 資質이 欠如된 世襲 샤만의 경우에는 ecstasy의 訓練이 人爲的으로 施行된다. 神靈과 最初로 ecstasy에 依한 直接交通의 體驗을 하는 motif의 入巫式도 이 要素와 必然的으로 關連되는 行事다.

샤만의 巫裝의 特徵은 鳥頭狀의 冠帽, 巫衣에 附着된 鈴, 鏡, 各種 禽獸像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鳥類로 表象되는 守護靈의 象徴, ecstasy에의 沒入 補助라는데 의미가 이어지고, 其他 巫具나 樂器인 單面鼓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結局 巫裝과 巫具가 分化되지 않은 狀態

로 巫術者的 立場에서 靈力を 發揮하기 위한 方法으로 몸을 꾸미고 있는 셈이 된다. 이렇게 構造的 連關을 갖는 諸要素의 集約으로서 그들의 魂이 旅行하는 世界는 天上, 地上, 地下의 垂直的 多層 宇宙라는 점도 하나의 特徵이다.

이와 같은 特徵은 滿洲에 오면 若干의 差異를 보여준다.

滿洲의 巫는 司祭의 職能이 強調된 家薩滿, 治病에 重点을 둔 跳大仙, 藝能 쪽에 기울어진 跳單鼓 등으로 그 職能이 分化되어 있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샤만처럼 脫魂(sectasy)旅行한다는 觀念이 없고, 神靈이 下降하여 巫의 身體에 憑依(possession)하여 忘我境(trance)에 沒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시베리아의 샤만처럼 歌·舞에 依하여 忘我境에 沒入함은 같되, 司祭, 藝能面이 強調되면서 忘我狀態 沒入이 薄弱해지고, 그에 따라 忘我訓練이라든지 入巫式등이 重視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巫裝·巫具에 있어선 鳥頭像의 冠帽形式이나 單面鼓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巫具의 本性도 類似하다. 다만 시베리아에서 巫衣의 裝飾으로 附着되었던 것들이 一部分離되어 巫가 손에 들고 춤추게 되어 있다.

本題인 濟州島를 中心으로 한 韓國의 巫는 南北의 差는 있지만, 大體的으로 보아 司祭的 職能이 強調되어 있다. 이 司祭面의 強調는 余他 職能이 他職能者에게 分擔되고 또 그 職能들은 公私로 分擔되어 갔으며, 그에 따라 歌舞에 依해서 儀禮를 하되 憑依現象이 弱화되었다. 이것은 世襲의 繼承이라는 면과 密着되고 또 成巫過程에서 巫病, 召命信仰의 弱化, 忘我訓練의 皆無等 現象을 빚어냈다. 그리고 巫裝·巫具面에도 相當한 變化를 가져왔으니, 冠帽는 갖에 鳥類의 깃을 꽂아 鳥頭像의 殘影을 보여주고 있지만, 巫衣가 官服으로 바뀌었고, 巫衣의 裝飾物이 巫具로 分離되어 손에 들게 되었으며, 單面鼓가 없어져 兩面鼓로 바뀌었고 其他 多樣한 樂器가 登場하고 있다. 시베리아, 滿洲 등 北方의 巫裝이 巫術者 立場의 것이라면 韓國의 것은 司祭者的 立場의 것임과 同時에 神으로의 扮裝이라는 兩面의 意義를 지니고 있다.

다음, 日本으로 넘어가면 神社巫는 歌·舞의 演劇的 職能을 맡고 民間巫는 託宣·靈媒의 職能을 遂行하고 있다. 이것은 巫의 公私職能의 分化現象으로 보인다. 即 巫의 司祭的面과 藝能的面은 公共的인 神社속으로, 託宣·靈媒의 職能은 民間巫에게로 갈려져 나가고, 한편 神社內의 司祭的 職能은 男司祭者인 神主(간누시)에게, 歌舞를 통한 迎神 憑依 要素는 神社巫에게 分擔되어 간 것이라 보인다. 本來 神社巫는 歌舞로써 憑神하고 神態를 演出하여 託宣하던 것인데, 오늘날은 憑依現象이 消滅되어 演戲化한 것이다.

神社巫의 憑依現象의 消滅은 그 家系繼承과도 有關하고 日本神道가 宗教에로의 發達에도 要因이 있다고 보아진다. 神社巫의 巫裝·巫具에 있어서는 거울, 鈴, 劍, 樂器 등 滿洲나 韓國에 類似한 것이 있지만, 異色の인 것도 여럿 있다. 그렇지만 北亞細亞의 샤마니즘이 滿洲, 韓國을 거쳐 이 神社巫에까지 그 즐거움이 이어진 것임을 是認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日本의 民間巫는 相當히 異質的인 면이 보인다. 그녀들은 勿論 弱化된 擬似憑神이지

단, 歌·舞의 方法에 依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呪文을 의므로써 憑神하고, 入巫의 過程도 巫病, 召命에 依한다는 觀念이 없이 盲目的 女人이 修行에 依하여 入巫하고 있다. 巫病, 召命 現象이 없으니, 그 대신 忘我的 訓練과 憑神의 體驗을 하는 入巫式이 重視되고 있다. 歌舞賽神 을 아니하니 樂器가 없고, 巫具도 念珠, 활동 韓國의 것과는 異質的인 것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것은 佛敎의 影響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

남쪽의 冲繩이 巫는 司祭役과 神役을 兼하는 <노로>와 巫術을 하는 <유다>로 나누어진다. 노로는 世襲을 하고 유다는 巫病을 앓아 入巫하는데, 日本의 民間巫처럼 呪文 朗誦에 依하여 憑神한다.

冲繩巫의 두드러진 特性은 人間인 巫를 神名으로 부르고, 直接 儀禮에서 神役을 한다는 점이다. 이는 儀禮時 憑神하여一時 神化하는 現象을 完全히 格式化, 制度化해 버려서 神 그 自体로 생각하게 觀念이 固定되어 버린 것이라 解釋된다.

冲繩의 巫衣는 白色이고 머리엔 넝쿨의 <가쓰라>를 쓰고, 부채를 除外하면 거의 巫具가 없으며, 樂器는 兩面鼓를 使用한다. 이런 点도 北方의 것과는 다른 것이지만, 또하나 두드러진 特徵의 하나는 海洋界의 他界를 認定하고 海洋聖域으로부터의 來訪神 信仰이 顯著하여 水平的 宇宙構造觀이 뚜렷한 점이다. 이 宇宙觀은 日本, 韓國에도 번지고 있다.

以上으로 보면 冲繩의 巫와 日本의 民間巫는 韓國 또는 그 北方의 것과 異質의 것임을 大略 느낄 수 있다.

이 差異를 더욱 鮮明히 하고 全体的 類型의 區劃을 긋기 위하여 몇개의 두드러진 要素를 表와 같이 對照시켜 볼 수 있다.

要素	地域	北·中央亞細亞	滿洲	韓國	日本	冲繩
trance의 내용	ecstasy					
	possession					
trance의 技術	歌 舞					
	呪 文					
巫의 類型	舞 巫					
	坐 巫					
巫의 性	男 女					
	女					
鳥類象冠						
鼓	單面鼓					
	兩面鼓					
水平的 宇宙觀						

表에서 보듯 要素別의 區劃線이 서로 다르지만 巫의 類型 規定에 重要的 要素는 ecstasy巫나, possession 巫나, 그리고 歌舞賽神을 하는 舞巫나, 아니나 하는 點에 있다 할 것이니, 이 點에서 보면 그 區劃線은 日本의 神社巫에서 끈어지게 된다. 이것은 北方 샤마니즘의 技術的 要素가 滿洲 韓國을 거쳐 日本에까지 들어간 것을 意味한다.

한편 宇宙觀에서 보면 神繩에 顯著한 水平的 宇宙觀이 日本, 韓國에까지 번지고 있어, 區劃이 韓國에서 끈어진다. 이는, 韓國 巫俗이 그 技術的 外形的인 面은 北方으로부터 흘러 들어와 發展하면서 日本으로 넘어가는 一方, 그 信仰的 內面的 面의 一部는 神繩으로부터 받아 들어온 것이 되는 것이다.

韓國의 巫俗은 이와 같이 南方과 北方의 양쪽 影響에 依해서 複合 形成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濟州島의 巫俗은 그런 것이다. 그러나 南쪽의 影響은 信仰 內部的 一部에 그치고, 外形的 技術的인 面은 北方의 影響이 絕對的이라 해야 한다. 따라서 샤마니즘이란 面에서 보면 亦是 北方의 影響이 絕對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 하면 샤마니즘은 神觀 宇宙觀등 信仰 內面보다 神과의 직접 交涉하는 技術이 重要的 本質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北方의 샤마니즘이 流入되어 基本的인 틀이 形成되고, 南方의 信仰的 要素가 一部 流入 複合되어 이루어진 것이 濟州島 乃至 韓國 巫俗의 原初的 모습이라 한다면 이것은 韓國民族·文化의 源流도 南·北 兩系統의 그것이 流入, 複合된 것이라는 것을 暗示해 주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假說은 巫俗 以外的 他 文化要素의 比較 研究를 通하여 兩系統의 文化가 文化複合體로서 流入되었음이 立證될 때 더욱 確固해 질 것이다.

이 研究는 HARVARD-YENCHING INSTITUTE의 1972~73年度 學術研究 補助費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 그 厚意에 感謝의 뜻을 올린다.

— Summary —

Comparative Study of Jeju Island Shamanism

by

Hyun Yong-joon

This study brought light on shamanistic post of Korean shamanism, through which I tried to approach on hypothesis as to the cultural system of Korean people.

To do this, I compared the characteristic elements of shamanism which are shamanistic functions, ritual initiative process, costumes, instruments, cosmology etc. with each other; I did those elements of Jeju Island with those of neighboring peoples, and examined the type of shamanism of various peoples, educed the spread process.

As the result of which, I concluded as follows:

1) Considered from a fundamental type of shaman, that of Jeju Island is the dancing type of shaman with that of Siberia, Central Asia, Manchuria shamanism and Jinja Miko of Japan; meanwhile shaman of Okinawa and popular shaman of Japan are included in the sitting type of shaman.

2) Considered from cosmology of faith interior, a level cosmology which is remarkable in Okinawa spread to Korea pass through Japan.

3) Consequently, the outward, technical side of Korean shamanism came in from the northward, growing gradually, going out to Japan; on the other hand, a ppart of the faith interiors was set up by the influence of Okinawa southward.

4) What shamanism of Korea was formed by the compound of the both southern and nothern systems suggests that the original stream of the national culture of Korea should also flowed in from them and has been compounded by the culture of them, too.